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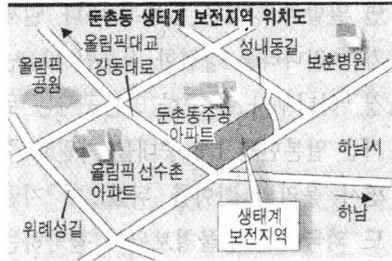
## 둔촌동 자연습지 생태계 보존

, 내년 보전지역 지정... 일반인 출입통제 훼손 방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26 일대 자연습지 1,400여평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최근 둔촌동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습지 150여평을 포함한 이 일대 사유지 1,400여평을 내년 5월부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 보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에서 생태계 보전지역이 지정된 것은 한강 밤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학술조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출입금지조치를 위반하면 최고 50만원, 그물이나 덫을 설치해 야생동물과 어류를 포획할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지역은 자생습지로서의 가치가 높으면서도 경작 등으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많아 그동안 주민들과 환경단체로부터 보전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당초 500여평에 달했던 자연습지가 경작을 위해 계속 훼손돼 현재는 150여평만 남은 상태.

이번에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자연습지를 포함해 이 일대 5만8,000여평은 임야의 35%가 수령 20년 이상의 자연림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자연습지 주변에는 서울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물박



달나무와 오리나무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 차례의 현장조사 결과 고마리 부들 등 습지식물과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와 오색딱따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사실도 발견했다.

서울시는 사유지를 매입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뒤 울타리를 설치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습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습지와 가까운 둔촌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반딧불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생태계를 복원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매일)

### ‘청주시 플라타너스 길 환경 정화 운동 및 자기나무 갖기’ 행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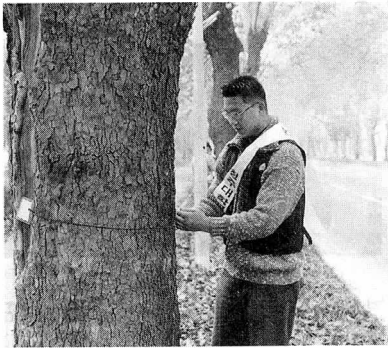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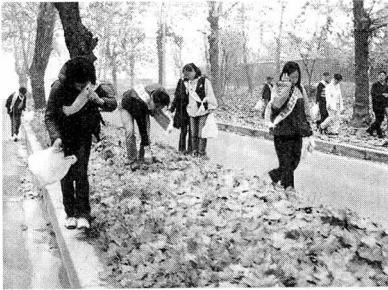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13일, 청주대학교 조



경학과 국립공원 녹색봉사단원을 포함한 1·2·3학년 학생들은 ‘청주시 플라타너스길(가로수 진입로) 환경 정화 운동 및 자기 나무 갖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올해로 3회째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4계절의 명소이자 청주시의 얼굴인 플라타너스길을 아끼고 보존하자는 취지 하에 이루어졌다.

플라타너스길이 시작되는 죽천교에서 부터 가경 터미널까지의 버려



진 쓰레기와 오물을 주워가며 정화 운동을 벌였다. 또한 이색적인 행사로 재학생 모두가 개개인의 플라타너스 나무에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표도 달아주어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의미 하에 '자기나무 갖기' 행사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행사로 인해 청주시의 자연 환경 정화에 한 걸음 다가 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청주대학교 조경학과 3학년 홍혜정)

## 환경부 환경기술상 시상

환경부는 최근 정수장 여과시스템을 개발한 (주)신우엔지니어링(대표 廉炳浩)에 제4회 환경기술상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 ◆국무총리상

- ▷포항산업과학연구원(스테인리스강의 청정산세기술)
- ▷아주대 홍민선 교수팀(고온집진용 세라믹 필터)

### ◆환경부장관상

- ▷LG화학 환경관리팀(폐수배출제로화시스템)
- ▷한국미생물기술(유류오염 토양정화기술)
- ▷더코산업(산업폐기물 재활용기술)
- ▷광덕기공(음식물찌꺼기 사료화)
- ▷광주농업고 강경환 교사(소형정수처리시스템)